

# 강진 마량항,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청신호'

###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최종 선정 300억 확보 고급형 낚시어선 건조 등 민간투자 부문 시너지 기대

강진 마량항에 대규모 예산 투자가 확정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지난달 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강진원 군수가 진두지휘해 공모계획서 작성을 주도했고 현장에서도 직접 발표를 한 데 이어 특히 지난 15일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적기에 면담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마량항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현장 설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

물론 민간 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20척)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 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기존 1차 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신안군, 300년 전 노들길 복원한다

### 콘크리트 노들길 철거 옛 추포 노들길 드러나 신안암태-추포갯벌 등 갯벌생태계 복원 앞장



신안군이 콘크리트 노들길을 철거하면서 300년 역사가 담긴 옛 노들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추포 옛 노들길은 암태도와 추포도를 잇는 국내 최장길이의 징검다리로 25km 갯벌 위에 선조들이 직접 돌을 놓아 만든 길이다. 옛 노들길의 역사는 추포도에 세워진 노도비루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무려 30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 노들길에는 자연을 활용해 해수 유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갯벌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선조의 지혜가 녹아있다. 추포 옛 노들길은 연륙교가 없는 섬의 유일한 출입구다. 노들길은 섬과 섬 사이, 섬과 육지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로 물이 빠지는 간조(썰물) 때 육지 또는 인근 섬으로 오갈 수 있는 통로다. 신안군은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콘크리트 노들길을

철거했으나 콘크리트로 인해 해수 유통이 불편하게 변했고, 갯벌의 퇴적량이 증가하면서 갯벌의 유용한 자원과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됐다. 이후 추포대교가 설치되면서 콘크리트 노들길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동시에 갯벌생태계의 중요성이 주목받아 신안군은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 노들길 철거를 통해 미미하던 해수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퇴적물들이 깔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선조들이 사용하던 옛 노들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빠른 시일 내 옛 노들길 전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갯벌이라는 자연은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갯벌 복원은 인류가 변화시킨 자연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갯벌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신안군은 갯벌생태계 복원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이름으로 고창갯벌·고성순천갯벌·서천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신안갯벌 면적은 1천100.86㎢로 전체 유산구역의 약 8%를 차지한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18여년간 노력한 끝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에 명성을 올렸다. /신안=양훈 기자

## 목포 청년단체協 "전남권 의대 설립 환영"

목포청년단체협의회가 전남의대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목포청년단체협의회는 24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전남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국립의대 신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소회했다. <사진> 문준원 전남 청년의 목소리 대표는 "전국 17개 광역 유일 전남에만 없는 국립 의대 신설은 의료 인프라의 확보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안전된 정주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돌



아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계로 도약하는 더 큰 전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창의 K-청년 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날로 심해진다"

며 "병원과 의사 없이 살아온 섬 주민들과 전남 도민의 염원을 정치권에서 지역 분열 간 먹잇감으로 절대 사용되던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무안군 공무원, '가족 회사'에 일감주기 논란

### 내부 결재 통해...이해관계자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안군 소속 공무원 A씨가 내부 결재를 통해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이 일고 있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자 발령된 군 지역개발과 A팀장이 '영촌동마을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부 결재로 가족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용역으로 A팀장의 가족 회사인 지역 토목회사가 수행, 지난해 7월28일 준공했다. 이후 같은 해 8월3일 준공금이 지급됐다. A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 행위 중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김산 군수의 '청렴 무안 만들기'에 정면 배치돼 군 청렴도 하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사업 추진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안군 담당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감사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준비 돌입

### 추진위원 위촉·임원 선출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용식 추진위원장을 비롯

해 올해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추진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원 선출, 축제 비영리법인 조직, 명품 축제를 위한 발전적 제안 등의 안건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며 "올해 축제는 2

024 영광광문의 해를 맞이해 그 어느 해보다도 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필요한 만큼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참여와 상호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6년 연속 전남도 대표 축제 선정과 2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한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오는 9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해남군, 농촌 인력난 해소 '농촌 일자리' 추진

### 총 10억 투입...교통·숙박비 등 지원

해남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외 구직자와 관내 농가를 연결하는 농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24일 "전남도·진도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농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외 구직자와 관내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이

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6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외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숙박비·웰컴키트·상해보험이 지원되며 관내 농가에는 참여촉진 수당이 지원된다. 해남군의 올해 목표는 1만1천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일자리 플러스'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지난해 해남군은 전남도와 함께 도내 최초로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 관외 도시지역의 유휴 인력을 해남군 농가와 매칭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모 사업에 응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팀(01-50-3363) 또는 사업운영기관인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해남지사(01-880-778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남=박영희 기자